

조선시대 佛家 山居詩의 유형적 양상

김석태*

<차 례>

1. 머리말
2. 조선시대 山居詩 개관
 - 1) 조선이전의 양상
 - 2) 조선시대 산거시의 전개
3. 주요작가의 山居詩
 - 1) 허응당보우
 - 2) 설암추봉
 - 3) 아암혜장
4. 맺음말

<국문초록>

山居詩는 고려시대로부터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하나의 전통을 이룬 불교문학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의 무의자혜심, 원감총지를 비롯하여, 조선의 청허휴정, 부휴선수, 그리고 조선말의 금명보정 등 산거시는 전 시대에 걸쳐 창작되어 대부분의 불가문학 작가들이 산거시를 남겼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불가 산거시의 작자와 작품들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 허응당보우, 설암추봉, 아암혜장의 산거시를 고찰하였다. 이들의 작품으로 조선시대 산거시를 포괄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많은 작품을 남긴 인물들의 시를 고찰함으로써 불교 산거시의 전형성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고려와 조선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불교 승려들의 산거시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그들은 산중의 생활을 세속과 대비하여 매우 가치 있고 바람직한 삶으로 인식하였다.

* 전남대학교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청한한 삶을 기쁘게 노래하였다. 또한 산 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존재들과의 교감 속에서 지혜를 얻고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깨달음을 추구하였다. 문학은 작자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승들의 산거시는 자연과 인간이 가장 가깝게 만나고, 깊이 있게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자연시이자 불교철학시라고 말할 수 있다.

핵심어 : 山居詩. 佛家文學. 虛應堂 普雨. 雪巖秋鵬. 兒庵惠藏

1. 머리말

산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자연이면서 사람의 삶과 어우러졌을 때는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山居란 ‘산에 산다’는 의미와 ‘산중의 거주지’라는 의미를 지닌다. 山居詩란 말 그대로 산중의 삶 속에서 창작된 시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山僧들의 시문집 속에는 ‘山居’ · ‘幽居’ · ‘獨居’ · ‘山中’ · ‘居~庵’ 등을 詩題로 한 시들이 적지 않게 전한다. 문학은 작자의 삶을 배경으로 하며, 그 공간적 배경과 詩作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山僧의 시에 산 살림이 반영된 것은 당연할 것이나, 그것이 우리나라 불가문학의 한 전통을 형성하였다면 주목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산거시는 불가 외의 인물들이 쓴 작품들도 있어 각각의 문학적 성과와 개성에 대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¹⁾

1) 산거시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강석근, 「근암 최옥의 山居詩」, 『동학연구』제19집, 한국동학학회, 2005.’ ‘강석근, 「근암 최옥의 山居詩(2)」, 『동학연구』제20집, 한국동학학회, 2006.’ ‘김상일, 「〈六老山居咏〉과 石屋淸珙·茶山 丁若鏞의 山居詩 비교」, 『한국문학연구』제35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08.’ ‘金周伯, 「退溪 李滉의 詩 〈山居四時〉에 대한 一考察」, 『한문학논집』19, 근역한문학회, 2001.’ ‘金柱洙, 「김시습 山居集句의 미학」 『대동문화연구』제64집, 대동문화연구원, 2008.’ ‘신두환, 「매월당 〈山居集句〉에 나타난 미의식」, 『한문학보』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줄고, 「月渚 道安의 山居詩 고찰」, 『한국언어문학』제60집, 한

고려시대에서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문집이 전하는 90여명의 불가문학 작가 중에서 위에서 말한 詩題로 산거시를 남긴 인물은 약 70명으로, 적게는 한두 수에서 많게는 이삼십 수에 이르는 산거시를 남겼다.²⁾ 전시에 걸쳐있어 산거시라는 말로 분류될 만큼 작품군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산거시란 고려, 조선 불가문학의 한 전형적인 유형이라 할만하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산승들의 산거시를 고찰하고자 한다. 고통의 속세를 떠나고, 본처로 귀의했으며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들은 출가를 결행했다. 경지의 높낮이를 가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그것은 ‘遠離顛倒夢想’의 길이며, ‘還至本處’, ‘安心立命’을 추구한 삶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시를 통하여, 떠난다는 것,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추구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우리나라 불가문학의 한 양식을 연구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산거시가 우리나라 불가문학의 주요한 문학적 유형이 될 만한가에 대한 것과, 그 시문의 내용적 성격이나 특성은 무엇인가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선이전부터 조선말기에 이르는 산거시의 존재양상을 정리해 보고, 조선시대 산거시의 주요 작가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언어문학회, 2007.’

2)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문집과 작품들은 《韓國佛敎全書》에 수록된 불가문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 조선시대 산거시 개관

1) 조선시대 이전의 양상

불가문집 소재 시 중에서 산거시로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는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의 <海印寺退居有作四首>일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해인사가 여산 동림사 보다 낮고, 가야산의 계곡은 호계보다 낮다고 하며, 그런 곳에서의 삶이 기쁘고 자신의 뜻을 이미 이룬 것이라고 하였다.³⁾ 이후 전개될 후대 불가 산거시의 지향을 개관할 만한 뜻을 보인 것이라 할 것이다. 의천의 뒤를 이어 眞覺國師 慧諶, 圓鑑國師 冲止, 白雲景閑, 太古普愚, 懶翁惠勤 등 고려말 문집을 남긴 거의 모든 인물들이 각각 한두 편에서 많게는 십 수편에 이르는 산거시를 남겼다. 그 일부를 들면, 혜심 <山中四威儀>·<幽居三首>, 충지 <幽居>·<山居暮春即事>·<山居>·<山中樂>, 백운화상 <居山>, 태고보우, <山中自樂歌>·<白雲菴歌>, 나옹혜근, <山居>·<幻菴山居> 등이다. 고려후기 불가의 산거시 중에서 그 시대 불가 산거시의 개성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시를 장편시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혜심의 <山中四威儀>는 인간의 행동을 네 가지로 나눈 行住坐臥로 수행자의 생활을 읊었다. <寓居轉物庵>은 그 내용이 전형적인 불가의 계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충지의 <山中樂>은 3언에서 7언 장단구로 된 18구의 형식으로 산중 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백운화상 <居山>⁴⁾은 3언이나 6언이 한두 구씩 있기는 하지만, 5·7언 102구의 장편시이다. 태고보우, <山中自樂歌>는 7언을 주조로 3언, 9언 등이 섞인 42구의 가송이다. <白雲菴歌>는 7언 32구. <雲山吟>은 5·7언 40구의 가송이다. 나옹혜근,

3) “海印寺勝廬岳寺, 伽椰還似虎溪流. 遠公高迹雖難繼, 且喜終焉志已酬.” <海印寺退居有作, 其一>.

4) 『白雲和尚語錄』《韓國佛教全書, 6-661》. 이하 《한불전》이라 칭함. 시의 주에 “右一頌, 在成佛菴作. 南山有大石, 形如師子背生大松, 故作此偈, 書其石.”이라 하여 성불암에 주석할 때 지은 시라 하였다.

<山居>는 7언 32구. 나옹화상의 또 다른 <山居>⁵⁾도 7언 32구의 장편시이다. 이 중에서 무의자 혜심, 원감충지, 나옹화상의 시를 살펴보자.

①

山中住 산중에 사노라니
只麼騰騰過朝暮 이처럼 느긋하게 아침저녁 지내노라
瘦鶴翹松類不齊 야윈 학 우뚝한 솔 종류는 다르지만
洒然自得幽居趣 시원스레 산 살림의 정취를 자득하였도다⁶⁾

②

.....

一竹杖一蒲團 대지팡이 하나에 부들방석 하나로
行亦禪兮坐亦禪 행주좌와가 모두 선이네
山中此樂眞有味 산중의 이 즐거움 참맛이 있나니
是非哀樂盡忘筌 시비와 애락 놓아버려 모두 잊었다네⁷⁾
山中此樂諒無價 산중의 이 즐거움 헤아릴 수 없이 귀하니
不願駕鶴又腰錢 학 타고 허리에 돈 차는 것 바라지 않고⁸⁾
適自適無管束 내 뜻대로 다녀 얽매임 없나니
但願一生放曠終天年 한 생 자유롭게 살다가 천수를 마치기를 바라네⁹⁾

③

.....

我自居山不厭山 내 산에 살면서 산이 싫증나지 않나니
柴門茅屋異人間 사립문 초막이 세상살이와 다르다
淸風和月簷前拂 청풍과 달 처마 앞에 어른거리고
澗水穿胷洗膽寒 산골 물 가슴과 담을 시원하게 씻어준다
無端逐步到磽邊 무단히 발길 따라 개울가에 다다르니

5) 『普濟尊者三種歌』, 《한불전 6-762》.
6) <山中四威儀>, 『無衣子詩集』下, 《한불전 6-61》.
7) 『莊子, 外物』, “筌者所以在魚, 得魚而忘筌.”
8) 소유한 것이 많음을 비유하는 ‘腰纏萬貫’의 고사. 南朝梁, 殷芸『小說』, “有客相從, 各言所志. 或願爲揚州刺史. 或願多貲財. 或願騎鶴上升. 其一人曰, ‘腰纏十萬貫, 騎鶴上揚州, 欲兼三者.’”
9) <山中樂>, 『圓鑑國師歌頌』 《한불전 6-394》.

流水冷冷自說禪 차갑게 흐르는 물 절로 선을 말하는구나
 遇物遇緣眞體現 만나는 물건과 인연 진리를 체현하니
 何論空劫未生前 어찌 공겁 태어나기 전 일을 말하겠는가¹⁰⁾

①은 무의자의 <山中四威儀> 중 ‘住’이다. 유거의 정취를 자득한 시인의 소쇄한 심사를 표현하였다. 그가 말하는 유거의 정취는 ‘不齊’와 ‘自得’에서 찾을 수 있다.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의 처지나 생태, 종류는 각기 다르지만, 각각의 생명력을 온전히 발현하면서 사니 곧 각자가 생명의 본원이며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발휘하면서도 융화하는 화엄의 理事無礙, 事事無礙의 경지에서 유거의 정취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②는 충지의 <山中樂>의 일부로, ‘처음 출가하여 백련암에 있을 때 지은 것(初出家, 住白蓮庵時作)’이라는 주가 있다. 이 시는 출가입산하여 수행승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산거의 포부를 밝힌 것이다. 청빈한 삶에 만족하며 부귀영화는 꿈도 꾸지 않고 오직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산중의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한다. 갓 출가한 입장이지만 암자를 품고 있는 산의 탈속한 기운의 도움이 있어 가고 머무는 모든 것이 선이라고 선수행자의 기개를 드러내기도 한다. ③은 나옹화상의 <山居> 중 일부이다. 청풍과 달이 가슴을 뚫듯이 씻어주었다 하니 그 마음이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계곡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절로 禪을 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바람과 달, 계곡의 물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불법의 현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에 만나는 모든 사물과 인연이 진리의 체현이니 진리가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따로 묻고 찾을 것이 없다고 한다. 마치 ‘父母未生前本來面目’의 화두를 설파하는 것 같다.

이들 시에서 말하는 자득과 행주좌와가 모두 선이라는 경지, 태어나기 전 소식 등은 모두 선의 지향점을 드러낸 말이다. 空劫以前이란 천지가 열리기 이전이라는 말이다. 부모미생전과 같은 말로 모든 존재의 본래의

10) <山居>, 『懶翁和尚歌頌』, <<한불전 6-731>>.

眞相이라는 뜻이다.¹¹⁾ 무의자 혜심은 <寓居轉物庵>¹²⁾에서 ‘오봉산 앞 바위굴 전물암에 살면서 다만 하하 웃을 뿐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태고보우는 <山中自樂歌>에서 ‘그대는 이 가운데 태고의 즐거움을 보라, 頭陀가 취해 춤을 추니 만 골짜기에 광풍이 인다. 스스로 즐기며 계절의 변화 모르고, 다만 바위의 꽃이 지는 것을 본다.’¹³⁾고 하였다. 자신들의 선적 경지 혹은 선풍을 활달하게 드러내 보였다. 고려후기 불가의 산거시는 조선시대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형식이 자유로운 장편시를 볼 수 있고, 산거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시인 정서의 형상화보다는, 선계와 같이 불교 사상을 선양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 조선시대 산거시의 전개

문집이 전하는 조선시대 불가문학 인물은 약 90명이다. 그 중 산거시를 남긴 인물은 약 60명 정도이다. 산거시의 형식을 보면, 절구, 율시를 비롯한 단형의 시가 주류이고, 虛應堂 普雨의 <山居雜詠> 15수, 兒庵惠藏의 <山居雜興> 20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작자가 지은 20여 편의 연작시¹⁴⁾와, 月峰策憲의 <幽居>, 鏡岩應允의 <禪居嘆>을 비롯한 5편 정도의 장편 고체시 등이 있다. 그리고 辭賦와 歌頌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淸虛休靜의 <林下辭> · <山中辭>, 虛靜法宗의 <山中辭> · <幽居辭>, 括虛取如의 <幽居辭> 등이 있고, 月峰策憲의 <山居述懷(賦)> · <幽居日出庵(賦)>가 있다. 가송류로는 括虛取如의 <雲山歌>, 克庵師誠의 <隱者歌> 등이 있는데, 가송류는 비록 두어 편에 지나지 않지만, 드문 경우라서 오히려 주목된다 하겠다.

11) 吉祥 編, 『佛敎大辭典』, 弘法院, 2001. 참조.

12) ‘五峰山前古庵窟, 中有一菴名轉物. 我栖此庵作活計, 只可呵呵難吐出.’ 『無衣子詩集』 下, <<한불전 6-58>>.

13) “君看太古此中樂, 頭陀醉舞狂風生萬壑. 自樂不知時序遷, 但看嶺花開又落.” 『太古和尚語錄』, <<한불전 6-684>>.

14) 여기에서 말하는 20여 편의 연작시에는 3수 이하의 연작은 제외한 것으로, 동일 제목에 2~3수 연작 산거시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또한 차운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담유일의 <和石屋和尚山中四威儀>¹⁵⁾, 철선혜즙의 <謹次石屋和尚閑居韻>(7수)¹⁶⁾, 보제심여의 <謹次石屋和尚居雜詩十二律>¹⁷⁾ 등이 있다. 그리고 범해각안¹⁸⁾, 금명보정¹⁹⁾ 등도 석옥청공의 산거시에 차운하였다. 이들은 모두 석옥청공의 7언율시 <閒詠>56수 중에서 철선혜즙은 7수, 그 외의 작자들은 12수에 차운하였다. 그리고 보제심여는 위의 시 바로 다음에 <又次十二絕句>²⁰⁾라 하여 석옥청공의 7언절구 <山居吟> 94수 중에서 12수에 차운하였고, 초의의순²¹⁾도 여기에 차운하였다. 石屋淸珙(1272~1352)은 元代의 고승으로 고려말 太古普愚가 그에게서 법을 전수받았다. 그의 『石屋禪師山居詩』²²⁾는 6권으로 제1권은 4언고시, 제2권은 5언고시, 제3권은 7언고시, 제4권은 5언율시, 제5권은 7언율시, 제6권은 7언절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두가 산거나 유거, 산중 등의 시제로 된 것은 아니고, 산승으로 살면서 지은 시를 모아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불가에서 석옥청공의 산거시에 대하여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차운시를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불가의 산거시에서 석옥청공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산거시는 중국에서는 唐代의 寒山, 貫休 등으로부터 宋의 永明延壽, 元代의 石屋淸珙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후기에서부터 조선후기까지 전 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불가문학의 한 유형을 형성하였다 할 것이다.²³⁾

조선시대 가장 앞서 산거시를 남긴 사람은 涵虛堂 己和이다. 그는 <天

15) 『蓮潭大師林下錄』권1, <<한불전10-231>>.

16) 『鐵船小艸』, <<한불전10-886>>.

17) 『山志錄』<<한불전12-273>>.

18) <次石屋和尚山居時十二首>, 『梵海禪師詩集』권1, <<한불전10-1101>>.

19) <敬次石室山居雜詠十二律>, 『茶松詩稿』권2, <<한불전12-614>>. <和茶長老燈下口點用石室山居韻>, 『茶松詩稿』권2, <<한불전12-617>>.

20) 『山志錄』<<한불전12-274>>.

21) <水鍾寺次石屋和尚十二首>, 『艸衣詩藁』권1, <<한불전10-840>>.

22) <<續修四庫全書 1324>>에 수록되어 있다.

23) 산거시가 전통을 이룬 불교문학의 한 양식임은, ‘김상일, 앞의 논문, 290쪽.’에서도 논한 바 있다.

寶山居〉·〈山中趣味〉·〈山中味〉 등 몇 수의 시를 남겼는데, 모두 탈속한 삶과 그 속에서 明澄하게 깨어있는 정신의 경계를 노래한 것들이다. 〈天寶山居〉에서는, ‘塵事를 초탈한 마음의 경계를 형용하기 어렵다.’²⁴⁾ 하였고, 〈山中味〉에서는, ‘깊은 산골에서 晝夜로 구름과 달을 보고 살면서, 인간사를 꿈도 꾸지 않으며 다만 禪悅을 누린다.’²⁵⁾고 하였다. 자연 속의 청정한 삶과 수행, 그리고 수행을 통해 이룬 한층 승화된 정신의 경계 등은 이후 전개될 불가문학 산거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산거시는 산을 배경으로 한 문학으로, 작자인 산승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錦溟寶鼎(1861~1930)의 시가 참고가 된다. 그는 산 생활의 고락을 직접 시로 표현하였는데, 〈山家樂 三首〉와 〈山家苦 二首〉가 그것이다. 이 두 편의 시에서 그는 산승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었다. 다음 〈山家樂〉 한 수를 보자.

扶杖忘機坐石垵	지팡이에 기대어 機心 잊고 석대에 앉아
閒看幽谷宿雲開	깊은 골 쌓인 구름 걷히는 모습 한가하게 보네
疊層屏嶂爲誰關	칩칩 병풍같은 벼랑 누구를 위하여 열렸는가
一帶溪流引磬來	한 줄기 계곡물은 경쇠소리를 이끌어 오네
嶺月團圓驚鳥夢	산마루 둥근 달 자던 새를 깨우고
林風快適解人哀	쾌적한 숲 바람은 애달픈 마음 풀어주네
華嚴讀罷香烟斷	화엄경 독송 마치니 향 연기도 다하고
百結鶉衣故不裁	납의가 누더기 되었으나 짐짓 새로 짓지 않네

이 시는 〈山家樂〉의 두 번째 시이다. 그 첫 번째 시에서는, 티끌세상 벗어난 곳에서 참된 즐거움이 무궁하게 펼쳐진다고 하면서, “백 가지 좋

24) “虛明自照眼惺惺, 人定風聲半夜鳴. 心境翛然塵事寂, 於中滋味說難形.” 〈天寶山居〉, 『涵虛堂得通和尚語錄』, 《한불전7-246》.

25) “山深谷密無人到, 盡日寥寥絕世緣. 晝則閒看雲出岫, 夜來空見月當天. 爐間馥郁茶烟氣, 堂上氤氳玉篆煙. 不夢人間喧擾事, 但將禪悅坐經年.” 〈山中味〉, 『涵虛堂得通和尚語錄』, 《한불전7-250》.

은 꽃 심어서 피는 것 아니요, 온 산의 기이한 새 부르지 않아도 오네. 계곡물 빛, 산 색 능히 음률을 이루고, 자비의 마음 슬픔을 구제할 수 있네”²⁶⁾라고 하였다. 위의 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깊은 산중에서 機心을 잊고 사는 삶은 꽃과 새가 절로 피고 지저귀듯 스스로 그러한 자연과 합일된 것이었다. 그리고 위 시의 마지막 연에서 말하였듯이 불교적 수행이 일상적 삶의 근간이 되었음은 새삼스럽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산거의 괴로움을 읊는다는 제목의 <山家苦 其一>에서, ‘물병과 석장만을 지닌 한 생애가 족하고, 하루 여섯 때 마음을 다스리고 수마를 물리치며 고행정진하는 삶을 능히 참고 견딘다.’²⁷⁾고 하였다. 其二에서는, ‘몸에 짊어진 四恩²⁸⁾의 무게 헤아리기 어렵고, 마음은 三惑²⁹⁾에 매여 끝이 없다.’³⁰⁾고 하였다. 그가 말한 ‘산에 사는 괴로움’은 생활고나 인간관계의 갈등과 같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괴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행자로서 득도해탈을 위한 정진과정의 自省的 苦惱이다. <山家樂>(其三)에서 “아홉 달 안거를 누가 힘들다 하는가, 하루 두 때 죽으로 끼니를 때워도 아쉬울 것 없다네.”³¹⁾라고 했듯이, 이른바 생활고란 관심 밖의 일이었다. 결국 시인이 말하는 산거의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상반된 의미가 아닌 동일한 지향점을 향한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다. 虛白明照(1593~1661)도

26) “百本名花非種發, 千林奇鳥不招來. 溪光岳色能成律, 慈力悲心可濟哀.” 『茶松詩稿』 제3권, <한불전12-662>.

27) “斫土攀枝構一家, 柱頭葉長桶頭華. 肩掛鉢囊何事業, 手携瓶錫足生涯. 六時把轡調心馬, 一念揮鞭擊睡蛇. 苦行精進能堪忍, 德被千秋化被鴉.” <山家苦 二首>(一) 『茶松詩稿』 제3권, <한불전12-662>.

28) 四恩은 모든 인간이 받는 네 종의 은혜.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국왕의 은혜, 三寶의 은혜. 이와 같은 사은은 일체 중생이 평등하다고 한다. 길상 편, 앞의 책, 1109쪽. 참조.

29) 三惑은 세 종류의 근본적인 번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뜻하는 ‘貪瞋癡’를 말한다. 또한 見思惑, 塵沙惑, 無明惑 등을 말하기도 한다. 길상 편, 앞의 책, 1243~1244쪽. 참조.

30) “百尺梵宮非我家, 燦然萬像亦空華. 身擔四恩重莫測, 心纏三惑浩無涯. 樹下寄神多怨賊, 塚間托迹畏龍蛇. 此生若不惺塵夢, 何異青山告惡鴉.”

31) “九朔安居誰說苦, 二時粥飯亦非哀.”

산중에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山中樂>에서 ‘송화와 샘물을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세상사는 맛이 족하고, 세 칸 초가집에서 세상의 인정과 영화를 잇는다.’³²⁾고 하였다.

앞의 조선시대 고승 산거시의 초기 함허당 기화의 시나 그 마지막 시기를 장식한 금명보정의 시나, 작자에 따라 그 문학적 취향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불가의 산거시라는 틀에서 보면 일관되게 이어지는 맥락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불교적 수행을 기반으로하여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지향하며, 궁극에는 인간 정신의 정화, 또는 깨달음을 문학적으로 승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매우 단순화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맥락은 불가문학 산거시에 거의 일관되게 흐르는 기풍이어서 불가문학의 한 전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시대 산거시의 대표가 될 만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의 산거시를 고찰함으로써 조선시대 불가 산거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불가 산거시의 맥락 속에서 각 작자의 개성에 초점을 맞춰 산거시를 논하고자 한다. 세 인물의 산거시로 조선시대 불가 산거시를 포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가 산거시가 개별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로 대별된다고 전제하고, 비교적 다수의 시문을 남긴 인물의 작품을 통하여 불가 산거시의 전형성을 고찰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허응당 보우, 설암추봉, 아암혜장 등 세 인물의 산거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허응당 보우와 아암혜장은 각각 15수, 20수의 연작시를 지었고, 설암추봉은 가장 많은 산거시를 남겼다.

32) “松花飢拾平生足，渴飲流泉世味清。”(其一). “三間草屋沒人情，亡却功名濁世榮。”(其二). 『虛白集』, <8-390>.

3. 주요작가의 山居詩

1) 허응당 보우

虛應堂 普雨(1509~1565)는 호가 虛應, 懶庵으로, 15세에 금강산 摩訶衍庵으로 출가하였다. 중종의 계비 文定王后의 후원으로 조선 불교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명종6년(1551) 判禪宗事都大禪師에 임명되고 봉은사 주지가 되었다. 그리고 명종7년(1552)에는 승과를 실시하였는데, 조선 불교의 대표적 인물인 서산대사 휴정도 이때의 승과 출신이며, 사명대사 유정도 그 후에 승과를 통하여 등용되었다.³³⁾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불교계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보우는 산중에 은거하면서 수도정진에만 몰두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었다. 청허휴정과 사명유정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만나 산을 나왔고, 보우는 몰락한 교단을 일으키고자 세상으로 나선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본분은 수행승이었으며 삶의 기반은 산사였다. 그의 시문을 보면 금강산을 비롯하여 자신이 머물렀던 전국의 수많은 산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산거시를 고찰하는 입장에서 15수의 연작인 <山居雜詠>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조선불교의 극심한 탄압기에 문정왕후의 후원으로 불교부흥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니만큼, 허응당 보우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정치권과 매우 가까운 인물로 인식된 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유생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제도권내에서 활동했던 시기는 그의 출가승으로서 일생에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봉은사 주지가 된 때부터 입적할 때까지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니 법랍 42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산승 본연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의 문집에 있는 출가 산승의 삶과 수행, 자연 등을 읊은 많은 시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飢向林間收橡栗 배고프면 숲에 가 도토리 밤을 줍고

33)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2000, 272~273쪽.

渴尋巖底汲清湍 목마르면 바위 밑 찾아 맑은 물 길는다
 萬鐘九鼎公卿樂 공경의 부귀영화 누리는 즐거움
 爭換山僧半日閑 어찌 산승의 한나절 한가함과 바꾸랴³⁴⁾

허응당의 <山居雜咏> 중 일곱 번째 시이다. 이 산거잡영 시에서 “한 점 외로운 등불 밝히며 성조를 축원한다(一點孤燈祝聖朝)(其一)”든가, “임금을 축원하는 향로의 향연기 날린다.(祝君爐上篆煙飛)(其五)”, 혹은 “아침에 향사르고 임금님 요순과 나란하게 되기를 빈다(朝焚使主齊堯舜)(其六)”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불교계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승려가 자신의 시문에 군주를 축원하거나 태평성세를 기원하는 예는 허응당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는 허응당 산거시의 의미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시에서 산승의 일상적인 삶을 담담하게 말하고 그 평범한 삶이 공경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였다. (其三)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옥당의 영화를 자랑하지만 어찌 흰 구름 속 암자에서 시냇물 솔바람 소리 날마다 듣는 것만하겠는가’³⁵⁾라고 하였고, (其四)에서는 ‘오직 무명옷 입고 솔잎 먹는 즐거움 한평생 시작도 끝도 없다’³⁶⁾고 하였다.

僧房雖本靜 僧房은 본래 고요하나
 入夏轉清虛 여름 되자 더욱 청허하다
 愛獨朋從散 홀로 있고 싶어하니 벗들도 흩어지고
 嫌喧客任疎 소란함 싫어해 손님도 드물구나
 蟬聲山雨後 산 비 온 뒤 매미 소리 들리고
 松籟曉風餘 새벽 바람에 솔바람 소리 인다
 永日東窓下 온종일 동쪽 창 아래에서
 無心讀古書 무심히 옛 책을 읽노라³⁷⁾

34) <山居雜咏> 其七, 『虛應堂集』上, 《한불전7-534》.

35) “世人誇說玉堂榮, 晨露承雲奏滿庭. 那似白雲庵裏客, 澗聲松籟日來聽.”

36) “腰金頂玉銀章貴, 憂樂相隨與奪中. 唯此布衣松飯樂, 一生無始亦無終.”

37) <山中即事>, 『虛應堂集』上, 《한불전7-544》.

사는 곳은 본래 고요한 곳인데 여름이 되어 더욱 청허하다고 한다. 고요함과 청허함은 산거의 주된 분위기이자 산거시 창작의 주요한 계기가 된다. 세 번째 연의 산비와 새벽 솔바람으로 신선함을 더했다. 그러한 자연 속에서 시인이 하는 일은 온 종일 동창 아래서 책을 읽는다고 했다. 자신의 심사를 ‘無心’ 한마디로 표현하였다. 무심이란 만사만물을 있는 그대로 두고 자신의 견해로 분별하며 판단하지 않는 본래 그러한 如如한 마음 상태이다. 무심의 경지란 선의 경지를 이룬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무심의 경지에서 누리는 삶이기에 세속과는 차원이 다른 삶일 수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무심의 마음으로 이룬 산중의 삶은 세속과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듯 세속과 대비되어 드러나는 산거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면 세속의 대비는 사라지고 산거의 일상 자체로서 자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경지를 느끼게 된다.

①

山非有意容貧道 산은 다른 뜻 있어 산승을 용납한 것 아니고
 貧道無心假碧山 산승은 무심히 푸른 산을 빌렸구나
 我即是山山即我 내가 곧 이 산이요 산이 곧 나이니
 不知相對白雲間 흰 구름 사이 서로 대한 줄도 모른다네³⁸⁾

②

三椽茅屋構雲阿 서까래 셋 덧집을 구름 언덕에 지었더니
 鳥不棲簷鹿不過 새는 처마에 깃들지 않고 사슴도 오지 않네
 獨有懶僧無事坐 오직 게으른 스님만 일 없이 앉아서
 不知松翠滴袈裟 솔의 푸른빛 가사에 물드는 것도 모른다네³⁹⁾

허응당은 <夏居右庵>이라는 시에서, “암자는 높은 산 하늘 가까운 곳, 세월을 기록한 달력이 없어도 해를 안다. 시간은 꽃 피고 지는 것으로 헤

38) <山居雜咏> 其八, 『虛應堂集』上, 《한불전7-534》.

39) <山居雜咏> 其十.

아리고, 초하루 그믐은 차고 기우는 달을 보고 안다.”⁴⁰⁾고 하였다. 달력을 통해 인식하는 시간이란 자연의 변화를 따라 인간이 편의적으로 부여해 놓은 인식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의 생주이멸이 본래 있었고 시간의 인식이라는 관념은 인간이 문화적으로 생성해낸 관념인 것이다. 존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통찰하지 않고 인간의 사랑분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미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 되고 만다.

위의 시에서 허응당은 산중의 삶을 누리는 자신의 마음을 無心이라 하였고, 하는 일은 無事라고 하였다. 아무 뜻 없이 인간을 포용한 산, 무심히 산의 품에 안긴 인간. 그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경지를 ‘산이 곧 자신이고 자신이 곧 산’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시에서는 새나 사슴과도 어울리지 않는 독존의 삶을 말하였다. 보통 한적한 산중의 삶을 노래하거나, 자연과 물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할 때 機心을 버리니 새나 사슴도 경계심을 내려놓고 따른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나 사슴도 오지 않는 곳에 산승만 독존하고 있는 삶을 노래하였다. 여기에서 ‘無事’라는 말의 뜻은 물과 아의 미세한 경계가 남아있는 물아일체의 경지마저도 초탈해버린 한적한 마음의 상태를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나무의 푸른 빛이 옷에 젖어든다고 한 것이다. 허응당은 세속과 대비된 산중의 생활 속에서 산거의 참맛을 느끼고자 했으며 그 정취를 무심의 경지로 승화하였다.

2) 설암추봉

雪巖秋鵬(1651~1706)은 평안남도 강동 사람으로, 原州 法興寺로 출가하였다. 묘향산 보현사에서 화엄을 강론하고 있던 월저도안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월저도안을 모시고 10여년 공부하고 남쪽 지방을 순회하며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해남 두륜산 대둔사의 13대 종사 중 제5대 종사가 되었다. 설암추봉은 조선시대 고승 중에서 가장 많은 산거시를 남겼다. ‘山居’ ‘幽居’ 등의 詩題만 해서 20여 편이 넘는 시를 남겼는데, 산거

40) “庵架山高近碧天, 紀時無曆可知年. 光陰暗占花開謝, 晦朔能分月缺圓.”

시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작품이 있다. 설암은 月渚道安의 제자로 <月渚大師閑居詠懷韻>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의 청정 고적인 산중의 삶을 노래한 다음 시를 보자.

①

草屋眞蕭洒 초가집 참으로 소쇄한데
老僧獨掩扉 노승 홀로 사립문 닫고 사네
風高秋葉落 가을바람에 낙엽 지고
雨細晚花肥 가랑비에 늦은 꽃 싱그럽네
地僻人來少 땅이 후미져 오는 이 적고
山深客到稀 산이 깊어 나그네도 드무네
半天斜日暮 하늘에 석양빛 저무니
寒氣襲麻衣 한기가 삼베옷에 스며드네⁴¹⁾

②

深山竟日無人到 깊은 산 하루가 다가도 찾는 이 없고
滿地白雲長不掃 땅 가득 흰 구름 오래도록 쓸지 않았네
蝸舍清幽更寂寥 오두막 맑고 깊어 더욱 적료한데
簷前但聽觀音鳥 처마맡에는 관음조 소리만 들리네⁴²⁾

두 편의 시 공통적으로 세속을 멀리한 고적인 경계를 제시하면서 시상을 일으켰다. ①에서는 소쇄한 초가집에 노승 혼자 문을 닫고 산다고 하였고, ②에서는 산이 깊어 찾는 이가 없다고 하였다. ‘山深客到稀’·‘深山竟日無人到’ 산이 깊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끊거나 최소화 한다는 것, 이것이 산거의 고유성이다. 산이 깊다는 것은 자연에 그 만큼 깊숙하게 습합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고, 인간과의 인연이 멀다는 것은 고독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정신의 자유와 심오한 자기 탐구의 좋은 환경이기도 하다.

이어서 주변 경관과 생활을 제시하였다. 서늘한 바람에 낙엽지고 가랑

41) <山居>, 『雪嶠雜著』권3, <<한불전9-322>>.

42) <幽居>, 『雪嶠雜著』권3, <<한불전9-309>>.

비에 늦은 꽃이 싱그럽게 피는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시에 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는 흰구름이 마당 가득하다고 하며 이마저도 쓸지 않고 머무는 대로 흐르는 대로 둔다고 한다. 일상적인 산사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 속에서 고적한 삶의 경계를 표현해 내었다. 시상을 갈무리하는 마지막 연과 결구에서는 저물녘 온 몸이 스며드는 한기로 성성하게 깨어있는 산승의 고고한 정신을 형상화해 냈고, 산 전체로 울려 퍼지며 사라지는 관음조 소리를 제시하면서 산과 함께 공명하는 시인의 공적한 정신의 경계를 드러내었다. 설암추봉은 그의 <讚溪> 시에서 “산중에 고금의 어지러운 계곡 물 소리는, 삼세에 찬연히 끊이지 않는 설법이다.”⁴³⁾고 하였다. 그리고 <讚山>에서는, “구름 밖 청산의 천만 겹 산, 활연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면목이다.”⁴⁴⁾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산과 어우러지는 산중의 생활은 그 자체가 물아가 일체로 융섭하는 진리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일이었다.

閑依樹下占禪安 나무 아래 한가하게 앉아 선정에 드니
雪拍麻衣冷射肝 삼베옷에 눈보라 쳐 냉기가 간장을 찌르네
日暮遠尋東院去 날 저무니 멀리 동원을 찾아가
要燒木佛禦天寒 목불을 태워 추위를 막으려네⁴⁵⁾

목불을 태워 추위를 막는다는 말은 唐 丹霞天然(739~824)의 유명한 일화를 시에 원용한 것이다. 그것은 형상의 분별에 집착하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나무 아래 한가롭게 선정에 든다고 하였지만, 그 한가함이란 분별심을 놓아버린 무심의 경지를 이르는 말로 그 속에는 사람의 정신을 극도로 투명한 상태로 깨어있게 하는 서릿발 같

43) “常謂迦譚是指南，方知妙唱不干舌。山中今古亂溪聲，三世燦然無間說。”『雪嶠雜著』권3, <<한불전9-303>>.

44) “雲外青山千萬重，豁開清淨毘盧面。雖然亘古鎮巍巍，亦不爲之愚者現。”『雪嶠雜著』권3, <<한불전9-303>>.

45) <山居>, 『雪嶠雜著』권3, <<한불전9-307>>.

은 정신이 살아 있다. 위의 시에서 보듯이 산중의 삶은 세속의 안락한 삶과는 그 차원과 지향을 달리한다. 최소한의 것으로 삶을 유지하는 청빈함과 범속에 무심한 여유로운 마음을 지니면서 그 근저에는 서슬 퍼런 수행자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정신이 밀바탕에 있기에 형상의 분별과 집착을 뛰어 넘어 목불을 태워 추위를 막는다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幽居無事少逢迎	깊은 곳 일 없어 맞이할 이 드물니
起坐偏宜養性靈	일상의 삶은 성령을 기르기 마땅하다네
摘果穿林秋露滴	과실 따러 숲을 들어가니 가을 이슬이 젖고
煉茶然桂暮烟生	차 달이러 계수나무 태우니 저물녘 연기 이네
池通野水鳧來集	못은 들 물과 통해 오리가 모여들고
庭枕山雲鹿入行	산 구름 베고 누운 뜰에는 사슴이 들어오네
靜裏遍觀消長理	고요함 속에 생성소멸의 이치를 관하니
芸芸庶物自生成	많고 많은 존재들 절로 나고 자라는구나 ⁴⁶⁾

첫 번째 구에서 ‘幽居無事’라고 주제를 드러내었다. 그 일 없는 산거의 일상이란 性靈을 기르는 일이다. 성령을 기르는 일이 무엇인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에서 말하고 있다. 어떤 경지의 성령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별달리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슬에 젖으며 숲에 들어가 과실을 따고, 차를 달여 마시는 말 그대로 평범한 일상의 일이다. 일상의 평범한 모든 것에서 존재의 진리를 찾는 바, 그 생성소멸의 이치를 투철하게 관하고 보면 결국 그것들은 스스로 그러하게 나고 자라고 존재한다고 한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절로 그러한 존재로 사는 것이다. 풀 한포기에 이르는 모든 존재들 각기 우주의 중심이며 진리의 현현인 것이다. 설암추봉은 산거 일상의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수행의 삶을 살았으며, 산 생활에서 이른 선의 경지를 그의 산거시에 형상화하였다.

46) <幽居>, 『雪巖雜著』권1, <<한불전9-242>>.

3) 아암혜장

兒庵惠藏(1772~1811)은 법호를 兒庵 또는 蓮坡라고 한다. 해남 출신으로 어려서 두륜산 대둔사로 출가하여 月松再觀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春溪天默에게 학문을 익혔다. 당대의 대강백이었던 蓮潭有一, 雲潭鼎駟 등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의 나이 30세에 대둔사에서 화엄경 대법회를 주관하였고, 주역, 논어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1805년(순조5) 가을 당시 강진으로 유배와 있던 정약용과 처음 만나서 이후로 서로 교유하며 다산과 주역을 담론하기도 하였다. 아암혜장은 대둔사의 13대 강사 중 제12대 강사이다. 그는 <山居雜興>20수, <長春洞雜詩>12수 등 연작 산거시를 남겼다. 장춘동은 시의 주에서 말하듯이 대둔사가 있는 해남 두륜산을 말한다.⁴⁷⁾ 다산 정약용이 그의 <大菴寺碑閣茶禮文>을 보고 ‘관각의 대수가 쓴 문장과 같다.’⁴⁸⁾고 칭찬하였듯이 비록 많은 시문을 남기기는 않았지만 학문과 문장에 나름대로의 성취가 있었다.

猿啼虎嘯鶴梳翎 원숭이 울고 범이 포효하고 학이 깃 다듬는 것
 正眼看來摠是經 바른 눈으로 보면 모두가 경이라네
 菩薩神通何處在 보살의神通은 어디에 있는가
 落花飛盡舞蜻蜓 지는 꽃잎 다 날아가고 잠자리는 춤추네⁴⁹⁾

마음 속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담담한 禪定의 경지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이른바 평상심이 도라는 것이다. 별달리 진리가 있거나 그런 경지가 일상의 삶이나 있는 그대로 존재를 넘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 인간과 동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등 모든 것의 존재자체가 곧 진리

47) “海南之頭輪山，滿谷皆油茶，號曰長春洞。”

48) “茶山樵者云，此篇是館閣大手，能嗣李潤甫林彝好之絕響。余每山菴小醉，爲之擊節高唱，覺字字跳盪，句句聳竦，非復蔬筍口氣。”<大菴寺碑閣茶禮祝文>，『兒菴遺集』，권2，<<한불전10-697>>.

49) <山居雜興二十首>(其七)，『兒菴遺集』권1，<<한불전10-691>>.

라는 것이다.

아암혜장은 <山居雜興>(其五)에서 “아득히 서천 밖에 일념을 두고, 어찌하면 허공에 올라 외줄 다리를 건널까(迢迢一念西天外, 那得騰空渡索橋)”라고 했다. 그리고 <長春洞雜詩>(其十二)에서는 “麻衣를 입고 일찍이 산문을 내려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도를 이루지 못해 부끄럽구나. 뜰 앞의 잣나무 화두 공부에 누가 힘을 얻었는가, 연화세계는 다만 이름만 들었을 뿐이네.”⁵⁰⁾라고 하였다. 수행자로서의 갈망과 자성의 심정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수행자는 누구나 올바른 견해와 깨달음의 진실을 뜻하는 正法眼藏을 갖추어 불보살의 경지에 이를 것을 발원하고 정진한다. 그러나 그 길은 도달하기 어려운 길이어서 도중에 이와 같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지를 뛰어 넘는 사람은 결국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위의 시에서는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말하였다. 원숭이, 범, 학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자신의 천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여실한 진리의 참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다운 진의 세계는 깨달음의 눈인 正眼으로만이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시 제3,4구에서 보살의 신통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인가 하고 묻고 낙화가 날아가고 잠자리가 춤춘다고 선문답을 함으로써 한편의 禪偈와 방불케 한다. 수행과 일상의 삶이 어우러진 산거시는 이와 같이 선의 경지를 시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月落西峯曉磬鳴 서쪽 봉우리에 달 지고 새벽 경쇠 울리는데
竹風蕭瑟做新晴 대숲의 소슬한 바람에 날이 맑게 개는구나
蓮壇禮訖凭經几 불단에 예불 마치고 경 읽는 책상에 기대니
纔是禪牕一半明 비로소 선방의 창문이 어렴풋이 밝아오네⁵¹⁾

50) “麻衣曾不下山屜, 慚愧如今道未成. 柏樹工夫誰得力, 蓮花世界但聞名. 狂歌每向愁中發, 清淚多因醉後零. 坐罷蒲團還失笑, 莫將吾輩算天氓.” 『兒菴遺集』 권1, <<한불전 10-692>>.

51) <山居雜興二十首>(其一), 『兒菴遺集』 권1, <<한불전 10-691>>.

아암혜장은 <長春洞雜詩>(其一)에서 하늘을 가릴 듯 울창한 푸른 빛 속에 있는 두륵산과 그곳의 절을 ‘푸른 숲이 오솔길을 덮고, 흰 구름이 쌓여 禪宮을 에워싼 곳에서 하루 여섯 때 깊은 골짜기에 종소리 울리고 깊은 밤 香燈이 푸른 하늘에 빛난다.’⁵²⁾고 하였다. 위의 시에서도 심산유곡 고적한 산사의 정경과 그 안의 삶을 담담하게 말하였다. 깊은 산중은 언제나 조용하다 가끔씩 지저귀는 새소리, 멀리서 들리는 계곡물 소리, 바람 소리, 하나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조화를 이루며 그렇게 흘러가고 울려 퍼지고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새벽 산사의 맑은 기운과 적막감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투명하게 깨어있게 한다. 그 투명한 정신 속에서 세속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상념은 그 자취를 감춘다. 분명하게 깨어있는 의식이 그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투철하게 지켜보고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담담한 일상의 관조만 남는 것이다. 더 말을 붙이면 군더더기가 될 것이니 이 시의 제3,4구에서와 같이 새벽예불 마치고 앉아 禪窓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본다고 말할 뿐이다.

治牆百本種山家 담장을 수리하고 산집에 갖가지 나무를 심었으니
 九月應舒滿眼花 구월 되면 응당 눈에 가득 꽃 피리라
 澆了水瓶還獨立 나무에 물주고 돌아와 홀로 서 있노라니
 南風習習灑袈裟 화기로운 남풍이 가사를 시원하게 스치네⁵³⁾

이 시는 앞의 시 보다는 좀 더 동적이지만 생각이 실재를 넘지 않고 말이 생각을 부추기거나 넘지 않는다. 담장 수리하고 나무 심고 그 나무에 물주기, 이것은 일상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꽃이 피리라는 것과 남풍이 가사를 스친다는 정도의 생각만 일 뿐이다. 옷깃에 스치는 남풍의 和氣를 느끼는 것도 느낌에 대한 감정을 말한 것이

52) “頭輪翠色鬱穹窿，九曲橋連五百弓。綠樹濃妍深客逕，白雲堆疊遶禪宮。六時鍾磬停幽谷，半夜香燈映碧空。彈指倘令樓閣啓，即看彌勒許同風。”『兒菴遺集』, 권1, <한불전10-691>.

53) <山居雜興二十首>(其十二), 『兒菴遺集』, 권1, <10-691>.

아니라 남풍이 불어 옷깃을 스친다는 현상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의 마음에 이는 생각을 표현한 것은 ‘구월이 되면 응당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 또한 시인의 다양한 생각 작용으로 얻어낸 관념적 결과가 아니고 땅에 뿌리를 내린 꽃과 나무는 계절이 변하여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말을 빌어 드러냈을 뿐이다. 말하자면 삶과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존재의 모습과 자연의 변화를 담담하게 관조하고 그 관조의 세계를 잠시 말을 빌어 시로 표현할 뿐이다. 선정에 든 마음으로 관조한 세계를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암 혜장 산거시의 개성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우리나라 불가의 山居詩에 대한 고찰이다. 산거시가 고려말에서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詩僧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불가문학의 한 양식을 이루어 왔으나 그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산거시의 전통을 살펴보고 주요 작가의 산거시를 고찰함으로써 불가문학 산거시의 고유성 혹은 개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문집이 전하는 고승들의 문집 소재 산거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는 대각국사 의천의 시를 들 수 있다. 이후 진각국사 혜심, 원감국사 충지, 백운경한, 태고보우, 나옹혜근 등 고려말 문집을 남긴 대부분의 인물들이 한두 편에서 십 수편에 이르는 산거시를 남겼다. 선풍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고, 작자의 불교적 사상과 감정을 활달자재하게 표현하였던 점을 고려말 고승 산거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함허당 기화로부터 금명보정에 이르는 약 60명의 고승들이 산거시를 남겼다. 절구, 율시 등 단형의 시가 주류이고, 연작시, 장편고시 등이 있다. 그리고 辭賦와 歌頌도 있어, 다양

한 형식으로 산거의 정취와 뜻을 형상화하였다.

본고에서 조선시대 불가 산거시 주요작가로 허응당 보우, 설암추봉, 아암혜장의 시를 살펴 보았다. 이들이 조선시대 산거시 전체를 포괄하여 대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가장 많은 산거시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들의 산거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고승 산거시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전형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불가의 산거시는 俗塵을 떠나, 산으로 돌아가서, 그 생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 삶을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苦海라 일컬어지는 세계를 떠난다는 측면에서 ‘遠離顛倒夢想’이요, 본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還至本處’의 귀의이며, 깨달음을 통한 행복의 추구라는 뜻에서 ‘安心立命’의 지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것은 불교적 수행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지향하며, 궁극에는 인간 정신의 정화, 또는 깨달음을 문학적으로 승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불가문학의 전통을 형성했던 산거시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고려, 조선을 아우르는 산거시의 양상을 고찰하는 수준에 그친 한계가 있다. 이는 불가문학상 그 비중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산거시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논하고자하는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 개별 작가의 시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시대별 양상, 불가 외 산거시와의 비교 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남은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錦溟寶鼎, 『茶松詩稿』, <韓國佛教全書 제10책>
懶翁惠勤, 『懶翁和尚歌頌』, <韓國佛教全書 제6책>
懶翁惠勤, 『普濟尊者三種歌』, <韓國佛教全書 제6책>
白雲景閑, 『白雲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제6책>
梵海覺岸, 『梵海禪師詩集』, <韓國佛教全書 제10책>
普濟心如, 『山志錄』, <韓國佛教全書 제12책>
石屋清瑛, 『石屋禪師山居詩』, <續修四庫全書 1324>
雪岩秋鵬, 『雪嶺雜著』, <韓國佛教全書 제9책>
兒庵惠藏, 『兒菴遺集』, <韓國佛教全書 제10책>
蓮潭有一, 『蓮潭大師林下錄』, <韓國佛教全書 제10책>
圓鑑國師 冲止, 『圓鑑國師歌頌』, <韓國佛教全書 제6책>
『莊子』
眞覺國師 慧諶, 『無衣子詩集』, <韓國佛教全書 제6책>
鐵船惠楫, 『鐵船小艸』, <韓國佛教全書 제10책>
艸衣意恂, 『艸衣詩藁』, <韓國佛教全書 제10책>
太古普愚, 『太古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제6책>
涵虛堂己和, 『涵虛堂得通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제7책>
虛白明照, 『虛白集』, <韓國佛教全書 제8책>
虛應堂普雨, 『虛應堂集』, <韓國佛教全書 제7책>
- 강석근, 「근암 최옥의 山居詩」, 『동학연구』 제19집, 한국동학학회, 2005.
- 강석근, 「근암 최옥의 山居詩(2)」, 『동학연구』, 제20집, 한국동학학회, 2006.
- 吉祥 編, 『佛敎大辭典』, 弘法院, 2001.

- 김상일, 「〈六老山居咏〉과 石屋清珙·茶山 丁若鏞의 山居詩 비교」, 『한국문학연구』 제35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08, 290쪽.
- 김석태, 「月渚 道安의 山居詩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6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7.
-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2000, 272~273쪽.
- 金周伯, 「退溪 李滉의 詩 〈山居四時〉에 대한 一考察」, 한문학논집 19, 근역한문학회, 2001.
- 金柱洙, 「김시습 山居集句의 미학」 대동문화연구 제64집,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신두환, 「매월당 〈山居集句〉에 나타난 미의식」,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투고일 : 2011년 7월 12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Abstract〉

A study on Sangeosi(山居詩) of Buddhism in the Joseon Dynasty

Kim, Seok-tae

Sangeosi is poetry which poets expressed their impression and feelings living in the mountains. Buddhist priests wrote poems while they practiced asceticism in the mountains and Sangeosi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oems. From Goryeo Dynasty to Joseon Dynasty the Buddhist priests consistently had created the Sangeosi. It becomes a part of traditional Buddhist literature. The important figures are as follows: Daegakguksa Uicheon, Muuija Hyesim, Wongam Chungji, Taego Bou, Naong Hyegeun, and Baekun Gyeonghan. All of them were people in the Goryeo Dynasty. The number of priests who wrote the Sangeosi in the Joseon Dynasty is about 60 and their poems was distributed throughout the whole period such as from Cheongheo Hyujeong's to Geummyeong Bojeong's. This thesis addressed the writers of the Sangeosi and their poems. In addition, it inquired into the works of the prominent writers such as Heoeungdang Bou, Seolam Chubung and Aam Hyeja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priests' Sangeosi are as follows: The priests considered the life in the mountains as valuable and desirable one compared to earthly world. They thought the nature as a place to find peace and they sang a song which describes their life in harmony with nature with pleasure. Moreover, they gained wisdom through interaction with everything they were exposed to in nature and they pursued the realization to the world of truth. Literat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writers. Seon priests' Sangeosi is poetry that is created by human beings'

communion with nature, which is a kind of nature poems and poems about philosophy of the Buddhism.

Key-words : Sangeosi(山居詩). Seon priest(禪僧). Heoeungdang Bou(虛應堂 普雨), Seolam Chubung(雪巖秋鵬), Aam Hyejang(兒庵惠藏)

